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 도 자 료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배 포 일	2021. 05. 28. 13시 이후	매수	총 2매 (사진 1매 별도)
담당부서	일자리사업본부 / 사업개발부	담당자	본부장 박향희(02-3415-6903)
			선임 이상아(02-3415-693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 개최
-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 변화와 확대방안' 모색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5월 27일 15시 개발원에서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 변화와 확대방안"라는 주제로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 19 상황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김혜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심춘덕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박송묵 전국광역자활센터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광역·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포럼은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방안,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의 ▲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본 코로나 19 이후 참여자 특성과 향후 정책방향, 정석규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장의 ▲ 코로나 19 이후 자활현장의 변화 : 대구 자활사례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이슈로 열띤 주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코로나 19 이후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개편, 부양의무자 폐지 이후 자활참여자 증가에 따른 현안과 대응방안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적극적인 자활 이슈 발굴과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의 장으로써 자활정책포럼을 앞으로도 지속하여 자활복지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근로를 통해 저소득 참여주민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붙임> 관련사진 1매

(사진설명: ‘21.05.27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공)